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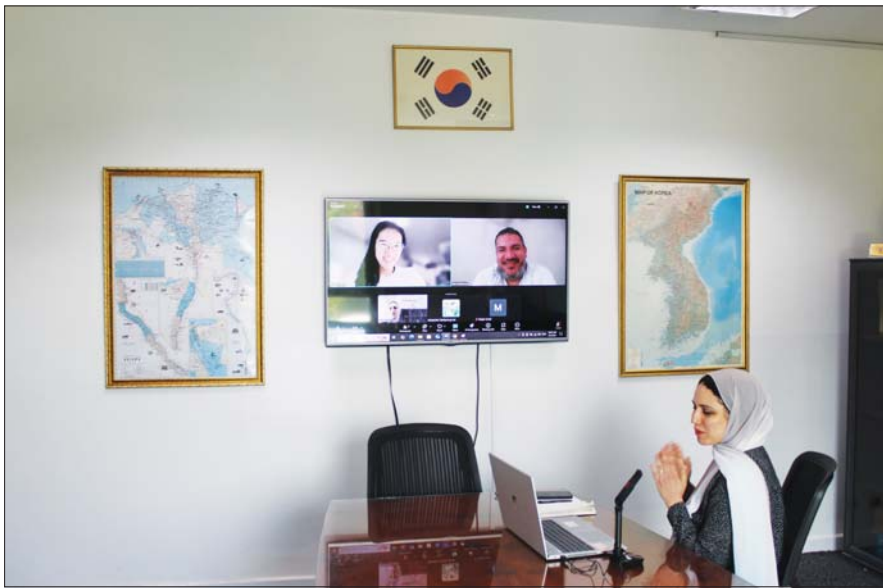
수출시장 다변화 총력… 美·中 대체·신흥국 진출 본격화

코트라, 대체시장 진출 전략보고서 릴레이 설명회, 화상상담회 집중 추진
강경성 “신정부 무역공약 뒷받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정부의 수출시장 다변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 수출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1일 유망시장 전략제시, 정보 제공, 바이어 연결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일 발간하는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통상 트렌드, 유망 품목, 진출전략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화상 상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유망시장을 ▲미중 대체수요 유망시장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 등 3개 테마로 분류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망품목을 제시

한다.

또 시장 변화 유형에 따라 팀코리아 활용, 경쟁우위 재포지셔닝, 기업경쟁력 강화 등 3가지 관점에서 수출다변화 전략을 제시해 기업들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

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담았다.

보고서 발간에 이어 6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대체시장 진출 전략 릴레이 설명회’를 서울 본사에서 개최한다. 미국·중국(12일), 베트남·인나·인도(19일), UAE·사우디·이집트(26일) 등 지역별로 본부장 또는 무역관장, 현지 전문가가 직접 방한해 통상이슈, 산업동향, 진출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통상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위해 6~7월 두 달간 대규모 화상 수출상담회도 집중 추진한다.

먼저 6월에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위축된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대체시장 바이어 500개사와 1대 1 화상상담을 주선한다. 7월에는 지역 소재 400개 중소·중견기업과 신흥시장 바이어 600개사 간 상담회를 추가로 열어 수

도권을 넘어 전국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6월 중국내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 식품산업대전, 전기산업엑스포,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등 6개 전시·상담회에 해외바이어 약 400개사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진행되는 30개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의 무역투자 공약사항인 수출시장 다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수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양시, BTS 품고 K-POP 거점 도약

이달 한달간 대형 공연 잇따라 개최

고양시가 6월 한 달간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행사를 잇달아 유치하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오프라인 ‘BTS FESTA’부터 제이홉의 월드투어 피날레, 진의 첫 팬콘서트까지, 고양시가 ‘글로벌 K-POP 공연거점 도시’로 부상하는 결정적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HOPE ON THE STAGE’의 마지막 공연이 펼쳐진다. 북미·아시아를 누빈 이번 투어의 피날레 무대가 고양에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고양시가 글로벌 아티스트의 무대를 잇달아 유치해온 성과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같은 시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을 기념하는 ‘2025 BTS FESTA’ 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고양에서 열리는 이번 오프라인 FESTA는 단순 공연을 넘어 전시, 체험, 포토존 등 복합 문화 콘텐츠로 구성돼 도심 전체가 하나의 축제 무대로 전환된다.

특히,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 관광정보센터, 킨텍스 광장, 일산서구청 주차타워 등 주요 거점에 BTS 콘셉트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이 도심 곳곳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시 전반을 테마화했다.

이 흐름은 6월 말에도 계속된다. 28~29일에는 진의 첫 단독 팬콘서트 ‘#RUNSEOKJIN_EP.TOUR’가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그의 글로벌 투어의 출발점이자, 팬들과의 첫 직접 소통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비수도권 특구, 외국인투자에 면적 풀어준다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 시·도 요청 반영, 인센티브 강화도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이 조과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도별 면적상한이 적용돼 광역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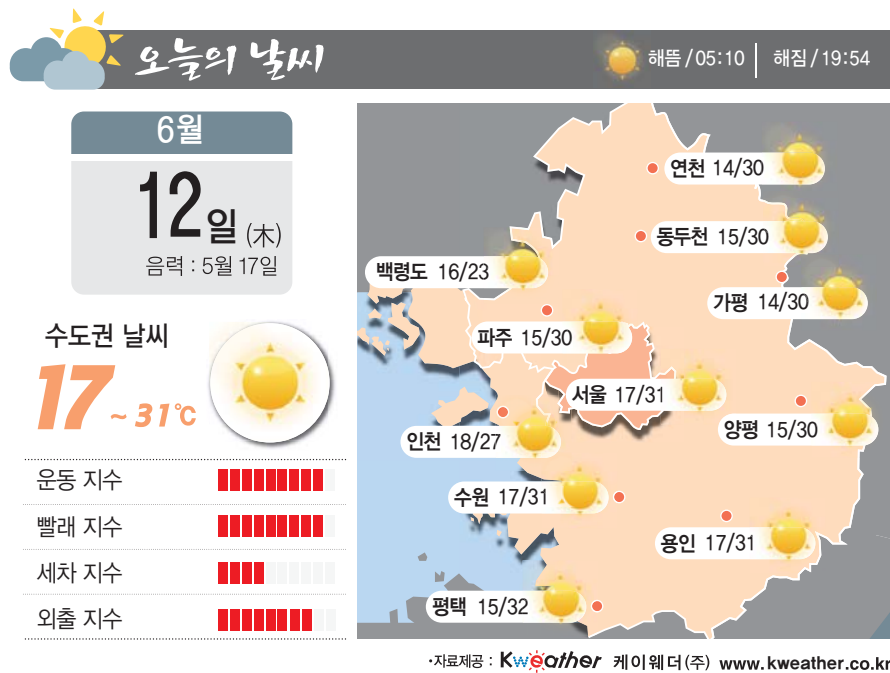
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했다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올해 우수환경도서 30종 선정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 대상

환경부가 11일 ‘2025년 우수환경도서’ 30종을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우수환경도서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환경주제 책(번역서 포함) 가운데 올해 2~3월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470종의 도서가 출품됐다. 이 중 선정된 우수환경도서 30종은 ▲유아용 4종 ▲초등 저학년(1~3) 6종 ▲초등 고학년(4~6) 4종 ▲중·고

등 6종 ▲성인용 10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도서는 전체 연령대에 걸쳐 크게 기후변화·탄소중립, 폐플라스틱 문제를 다뤘다.

환경부는 올해 우수환경도서 목록을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전국 공공립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격오지 학교와 지역사회에는 우수환경도서를 무료로 대여하고 증정(30세트)한다.

또 올해 환경교육 주간(6월 2~8일)과 연계해 열린 북콘서트와 같은 행사

를 통해 우수환경도서가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펼친다. 먼저 올 하반기에 전국 공공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우수환경도서관을 선정하고 지역 사회 및 독서의 달(9월)과 연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

서영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도서 선정사업은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과 실천력 향상에 기여했다”라며 “내년부터 2~3년 단위로 선정했던 우수환경도서 공모를 가능한 매년 진행하고 선정된 우수 환경도서가 널리 보급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美 LA 도심 야간 통행금지령 발동…10시간 동안 적용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공공안전 아닌 선동 택해” /사진 뉴시스

▲“전략에 공감 못 하면 떠나세요”… 구글, 핵심 부서도 ‘자발적 퇴사’
▲머스크父 “일론, 러시아서 로켓 사려했으나 거절당해”

▲시진핑 외동딸 33살 밍쩌 첫 외교무대 등장…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난
▲우크라 “러, 北 화성-11형 대포 개량… 기술적으로 다른 미사일”